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고용 둔화... 11월 일자리 19만9천개 늘어
- Bloomberg: 실업률 하락은 10대와 20세 이상 여성 근로자들이 주도
- WSJ: 10월 미 도매 재고 다시 감소
- Bloomberg: 미 소비자 심리 상승... 인플레 우려 완화로

[미국 금융]

- WSJ: 투자자들, 연준에 대해 두가지 반대 베팅
- WSJ: 모기지율, 7% 약간 위쪽 수준으로 하락

[철강]

- Bloomberg: EU, 미국 철강 관세 관련 WTO다시 재개 검토

[오일]

- Bloomberg: OPEC+의 감산이 실패한 원인은

[전기차]

- WSJ: 소형전기차 배터리, 앞으로 트렌드가 될 것
- CNBC: 왜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는가?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로펌들, 인재 영입에 팔 걷고 나서다
- TechCrunch: 아마존, 새로운 식료품 구독 서비스 9.99불에 시범운영
- Bloomberg: 미 병원들, 간호사 구인난 악화 중... 비자 지연 탓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U.S. Hiring Slowed From Earlier This Year, Unemployment Fell in November

미 고용 둔화... 11월 일자리 19만9천개 늘어

- 10월, 11월 연속해 미 고용주들의 채용 속도가 둔화되어 노동시장이 냉각 신호를 보이고 있다.
- 연방 노동부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미 경제는 11월에 19만9천개의 고용이 이뤄졌다. 특히 자동차 팽창으로 인해 3만명이 다시 고용으로 이뤄진 것도 한몫했다.
- 지난 두달간 일자리 증가 숫자는 올해 평균 보다 낮다.
- 실업률은 3.7%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평균 시간당 수입은 작년보다 4% 증가해 상승세가 팬데믹 이전 보다 높지만 작년과 올초 보다 둔화된 수치다.

WSJ 기사

Bloomberg: US Jobless-Rate Drop Led by Teenagers and Women Over 20 실업률 하락은 10대와 20세 이상 여성 근로자들이 주도

- 오늘 발표된 연방 노동부의 일자리 자료에서 일자리 증가 숫자는 보건, 정보, 제조업이 주도했으며, 정부 부분의 고용은 주로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끌었다. 보건 부분의 홈케어 일자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10대와 20대 여성 근로자의 일자리도 증가했다.
- 12월에도 여전히 강한 일자리 추세가 반복된다면 연준의 전망도 복잡해질 예정이다. 당초에 급여 증가율과 노동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
- 오늘 보고서는 노동 시장 강세, 소비자의 소비 강세 등으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Bloomberg 기사

WSJ: U.S. Wholesale Inventories Fell Again in October 10월 미 도매 재고가 다시 감소

- 10월 도매 재고가 9월에는 안정되었다가 10월에 다시 하락세를 보여 연주 부처의 하락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 어제 목요일 연방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도매 업체의 재고가 한달전과 비교해서 0.4% 감소했다.
- 비내구재 재고가 1% 감소 하락세를 주도했으며 석유 부문의 하락세가 큰 폭이었다. 반대로 내구재는 기계류 재고 증가로 전월이 9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

WSJ 기사

Bloomberg: US Consumer Sentiment Jumps as Inflation Concerns Dissipate 미 소비자 심리 상승... 인플레 우려 완화로

- 미 소비자 심리가 예상을 뒤엎고 12월에 빠르게 상승했다. 미가구들이 22년만에 가장 끈뎡으로 향후 1년간 인플레 기대치를 낮춘 상황에서다.
- 미시간대 심리지수가 12월 예비치에서 8.1 포인트 상승에 지난 4개월중 69.4로 최고치를 보였다.

- 소비자들은 내년엔 연간 물가가 3.1% 상승할 것으로 예상, 지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Double Trouble: Investors Fight the Fed on Two Fronts 투자자들, 연준에 대해 두가지 반대 베팅

- 투자자들이 우선 베팅하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더 빠르고 크게 내년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둘째 베팅은 연준이 장기적으로 예상보다 더 높게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10년물은 약 4.1%로 연준의 장기 금리 전망치 보다 1.5% 이상 높게 유지하고 있다.
- 이같은 두가지 베팅은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시장의 통념에 반하는 것이다.

WSJ 기사

WSJ: Mortgage Rates Fall to Just Above 7% 모기지율, 7% 약간 위쪽 수준으로 하락

- 모기지율인 지난 4개월만에 처음으로 7%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30년 고정모기지율이 어제 모기지 파이낸싱사 Freddie에 따르면 7.03%로 하락했다. 평균 모기지율은 지난 8월이래 평균 7%나 그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았다.
- 모기지율은 1주일전에는 7.22%였다. 최근의 움직임은 볼때 한달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주간 하락세다. 모기지율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따르는 추세인데 국채 수익률은 이달 경제 관련 데이터 수치가 둔화된 이후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WSJ 기사

[철강]

Bloomberg: EU Considers Restarting WTO Case Against US Over Steel Tariffs EU, 미국 철강 관세 관련 WTO다시 재개 검토

- 유럽연합은 트럼프 시대에 양측이 1백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 당시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것과 관련 WTO 대상 제소를 다시 시작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그러나 중요한 점은 유럽연합이 즉각적인 보복 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협상의 주요한 사안을 미국측에 양보할 수 있다고 소식통을 밝혔다.
- 유럽연합은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관세부과시 올해 대선을 남겨 놓고 트럼프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을 보도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WSJ: Why the OPEC+ Output Cuts Have Flopped OPEC+의 감산이 실패한 원인은

- 지난주 OPEC+가 감산을 발표했는데,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 OPEC+는 내년부터 하루 2백20만 배럴 추가 감산을 결정했음에도 유가가 약 9% 떨어진 것이다.
- 이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데, 추가 감산은 이미 예상되었거나 내년에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원유의 양은 많아 봐야 이번에 발표된 감산량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 첫 번째로, 백만 배럴은 이미 사우디가 기존에 감산하던 것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 두 번째로, 러시아 또한 2024년 말까지 하루당 50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며,
- 세 번째로, 앙골라는 내년의 OPEC+의 감산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할당된 공급량보다 하루당 약 7만 배럴을 더 많이 생산할 계획이다.
- 네 번째로, 이라크가 터키와의 합의를 통해 북부 쿠르드 지역을 통해 원유 수출하게 된다면, 내년도 원유 감산을 이행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Bloomberg 기사

[전기차]

WSJ: Why Smaller EV Batteries Could Be the Next Big Thing 소형전기차 배터리, 앞으로 트렌드가 될 것

-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걱정은 주행거리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이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배터리를 장착해 주행거리를 늘렸다. 그러나, 재충전하기엔 긴 시간이 필요하며 배터리가 무겁고 비싸다.

- 전기차 기업인 Lucid는 단 한 번의 충전으로 500마일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더 끌어올린 전기차 모터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 기업의 CEO인 Peter Rawlinson은 작고 빠른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와 더 나은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150마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말했다.
- 앞으로 전기차 기술의 경쟁력이 더 작은 배터리와 에너지 효율성에 달려다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CNBC: Why used EV prices are falling 왜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는가?

-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의 가격이 2022년 동기 대비 9월과 10월에 약 30% 정도 감소했다.
- ICE,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를 포함한 전체 중고차 가격 또한 5% 떨어졌다.
-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테슬라다. 테슬라가 새로 출시된 차량의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신호일 수 있으나, 전기차 수요의 감소와 미국인들이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Law Firms Escalate Talent War Even in Slower Economy 로펌들, 인재 영입에 팔 걷고 나서다

-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로펌에 대한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
- 이에 로펌들은 거액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스타 변호사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변호사 그룹을 인수하고 있다.
- 변호사들의 연봉 인상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등 인재 영입에 경쟁하는 것이다.
- 로펌인 Paul Weiss 회장을 맡고 있는 Brad Karp는 20년 전에는 고객들이 로펌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 상당수 고객은 로펌이 아닌 스타 변호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펌이 더 많은 스타 변호사를 보유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덧붙였다.

- 이번 주 City 로펌 그룹과 Hildebrandt 컨설팅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75%의 로펌들이 인재 영입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대답했다.

WSJ 기사

Tech Crunch: Amazon is piloting a new \$9.99 monthly grocery subscription for Prime members in three cities
아마존, 새로운 식료품 구독 서비스 9.99불에 시범운영

- 어제 목요일, 아마존이 세 개의 도시에서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월 9.99달러의 새로운 식료품 구독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에 있다.
- 이번 새로운 구독 상품은 회원들에게 Whole Foods Market과 아마존 프레쉬에서 35달러 이상 구매 시 제한 없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마존이 Tech Crunch에 보낸 정보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현재 Denver, Sacramento 그리고 Columbus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Tech Crunch 기사

Bloomberg: Nurse Shortages Are Set to Get Even Worse With Mass US Visa Delays
미 병원들, 간호사 구인난 악화 중... 비자 지연 탓

- 미국의 비자 시스템이 퇴보 중이다. 한 해에 정해진 비자 발급량은 비자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이런 비자 발급 지연은 특히나 병원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많은 병원이 외국 간호사들을 고용하고, 이를 위한 비자를 신청했음에도 정부의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다.
- 전문가들은 최소 만여 명의 외국인 간호사의 입국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미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간호사 구인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지난 팬데믹의 영향으로, 미국 내 10만여 명의 간호사가 지나친 업무량과 조기 퇴직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 뒤로, 미국 병원들은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간호사들을 적극 고용하기 시작한 바 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인플레 잡혀가는 것 맞나... 월가에 비관론 여전

**WSJ "구인, 팬데믹 수준 웃돌아...임금상승도 높아"
"금리 인하 기대 따른 증시 호황이 소비 촉진할 수도"**

월가 대부분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관론도 여전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인 건수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수준을 웃돌고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증시 랠리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